제4물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국 화학산업이 2002년을 접으면서 바야흐로 격변기에 접어들고 있고, 2003년에는 다시 한번 요동을 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곪아터진 부실을 거둬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시장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도약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

현대석유화학 인수를 둘러싸고 호남석유화학-LG화학 컨소시엄에 북미의 Koch Industries가 강력한 도전장을 내미는가 하면, 프랑스의 Atofina는 삼성종합화학의 지분 50%를 인수키로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삼성종합화학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디아의 Reliance Industries는 고합에서 분리된 KP케미칼 인수전에 뛰어들어 일본 Mitsubishi와 경쟁하고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한국 화학섬유산업의 효시나 다름없는 고합은 문을 닫게 됐고, 1990년을 전후해 한국 석유화학산업에 회오리를 일으킨 장본인인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도 이름표를 바꿔 달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 뿐이 아니다. 대한유화, 대림산업, SK 등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효시를 자처하는 3사도 이미 자생력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고, 2003년에는 역시 명함을 바꾸지 않으면 아니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을 풍미해온 4사와 1990년을 전후해 바람을 일으킨 2사가 2002-03년을 종점으로 퇴출되게 됐다는 점은 현재 존재하는 화학산업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줄 것이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점과 함께 살아남을 방안을 찾지 못하면 역시 퇴출될 수밖에 없는 매정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왜 그러할 수밖에 없는지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화학산업 관계자들이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도 거의 짐작하고 있을 것이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도 이미 깨달았을 것이다.

한국 화학산업 관계자들이 방법을 모르고 대안이 없어서 마냥 앉아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해법을 실행하고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용기가 나지 않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나 하루빨리 대안을 찾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의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니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자본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마케팅능력이 탁월하지도 않지 않은가 말이다. 갈수록 사나워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거의 찾을 수 없으니 문제이다. 아니 생존방안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는 고사성어를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한국 화학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의 원천이 무엇이고, 무엇을 개선해야 생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 화학기업들은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뛰어나 더 이상 뒤따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것이고, 중동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저코스트 석유화학제품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으며, 중국은 12억명이 넘는 거대한 수요층을 바탕으로 미국 및 유럽자본을 무더기로 유치하고 있다. 거기에 인디아와 동남아가 머지않아 저력을 발휘할 것이 분명한 상태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거대한 컴플렉스 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장 하나라도 건설하려면 외국자본을 들여와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외국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면 플랜트를 건설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할 수도 없다. 자원이라도 풍부하다면 코스트 경쟁이라도 해보련만 석유화학 원료는 100% 수입한다고 보아도 별 무리가 없다.

따라서 대안이라고는 인력밖에 없는 상태이다. 화학산업 관계자들이 경영자, 중간관리자, 실무자, 공장

운영자를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지 않으면 앞날을 보장받을 수 없는 급박한 지경에 이르렀고, 언제 퇴출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마냥 앉아서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을 시간이 없고, 무엇인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말이다.

WTO와 IMF는 무엇이고, 한국 화학산업이 처한 현실은 또 무엇인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인지 정확하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한국 화학산업, 아니 석유화학산업에 휘몰아치고 있는 한겨울의 광풍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인가?

<화학저널 2002/12/23>